

부현의 이야기를 그리다

# 부현화

부현의 이야기를 그리다  
부현화



부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복현의 이야기를 그리다

# 복현화



# 목차

1

04 인사말

2

07 사업소개

3

32 복원畫 - 복원을 담은 그림  
(그림화)





4

46 복현<sup>花</sup> - 꽃을 피우는 사람들  
(꽃화)

5

58 복현<sup>話</sup> - 청년들이 그린 복현이야기  
(이야기화)

6

80 마을 굿즈 이야기

7

94 맺음말







이웃들과 함께 살아온 마을 이야기  
‘복현화’에 담다.

- 복현1동 주민협의회 대표 강순덕

안녕하십니까? 복현1동 주민협의회 대표 강순덕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제 어느덧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힘들 때일수록 어려움을 나누고 힘이 되어주는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복현1동에는 ‘피란민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어 옛모습이 사라지고 많은 변화들이 생기겠지만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와 역사가 오래도록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복현1동 주민협의회는 「2019 복현 청년 소셜리빙랩」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유니에즈 서종정 대표와 [복현 그림마당]을 진행하면서, 4~50년 동안 살아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년들과 함께 그림으로 그려보며 추억을 떠올려보았고, 이를 활용하여 마을 굿즈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굿즈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하는 활동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옛 추억을 손수 그림으로 담아 내주신 마을 어르신들의 정성과 청년들의 참여가 어우러져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낯설기도 했지만 젊은 청년들과 옛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보낸 시간들은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복현1동의 이야기들이 소중한 문화자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지역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이 되기 위해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과 주민의 어울림이 있는 마을 '복현'

- 유니에즈 대표 서종정

안녕하세요. 유니에즈 대표 서종정입니다.

유니에즈는 '주체가 되어 나눔을 실천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내·외 리빙랩, 공익, 봉사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2019 복현 청년 소셜리빙랩」을 통해 복현동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도심 속에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현동 피란민촌'은 우리나라의 옛 모습과 느낌을 간직한 특색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을 기억하기 위해 복현 1동 주민협의체와 함께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복현 그림마당]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지는 마을이 아닌 기억하는 마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의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추억과 청년들의 도움이 어우러져 따뜻했던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나왔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굿즈를 개발하여 참여자분들께 선물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낯설게 생각하는 붓과 청년들이 낯설게 생각하는 마을의 모습은 워크숍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 어색하고 서먹서먹하던 모습이 아닌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순도순 나누는 청년과 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공동체의 시작은 협업이 아닌 어울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순도순 어울림이 있는 마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피란민촌, 오늘의 기억을 담다

# 복현 그림마당



주인과 청년이 함께 "피란민촌, 오늘의 기억을 담다"  
피란민촌 기록을 통해 마을을 기억하는 굿즈를 제작합니다.  
어르신들의 기억을 청년들과 함께 그려보아요

마을기록을 그림으로 새길 청년을 모집합니다. 그림은 추후 마을을 기억하는 굿즈로 제작됩니다.

모집기간	2021.06.07~2021.06.16
참가자격	청년, 대학생
모집인원	8명
신청방법	053-341-7962로 "성함/나이/vmsID/복현그림마당" 문자전송
일시	2021.06.18~2021.7.09(매주 금요일 총4회)

1회  
피란민촌  
스케치

2회  
피란민촌  
채색

3회  
그림  
마무리

4회  
결과  
공유회

시간	13:20~16:50
장소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대구시 북구 경대로 19길 13 2층)



# 사업소개

복현1동은 피란민촌이다. 차량이나 리어카조차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골목 주변으로 각양각색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대부분이 오래된 집들이며, 여기엔 아직도 공용화장실이 있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기름과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찾기 힘든 옛날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동네 속에 남아있다.

이렇게 옛날의 기억과 흔적을 머금고 있는 복현1동 피란민촌의 옛 모습은 이제 사라진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유니에즈는 복현1동 주민 협의체와 함께 피란민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 그리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기억과 삶을 기록하기 위해 ‘복현 그림마당’을 진행하였다.

‘복현 그림마당’은 현재 복현1동에 거주 중인 어르신들과 함께 옛 복현1동의 모습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이라는 창을 통해 주민들의 기억을 더 또렷하고 생생하게 기록한다. 또한, ‘그림’이라는 생활예술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소통하며 대화를 이끌어낸다.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어르신들이 기억을 꺼내는 것을 돕고, 생소할지도 모르는 그림 그리기를 돕는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은 잘 알지 못하는 피란민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은 더욱더 깊고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지역에 기록을 함께 만들어간다.



복현 그림마당은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마을자치모델사업>의 일환으로 유니에즈, 복현1동 주민협의체,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공동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복현 그림마당

2월

**기획준비**

- 마을자치모델사업 기획회의 및 사업계획서 작성

3월

**참가자 모집**

- 홍보물 제작 회의, 현수막, 웹 포스터 활용 홍보  
- 신규 참가자 발굴을 위한 청년 대상 홍보

4월

**심사 및 선정**

-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현장 방문 및 대면심사  
- 사업 선정, 선정팀 교육 및 협약식

5월

**청년 오리엔테이션**

- 지역 구성원으로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과 목표상에 대한 논의

6월

**프로그램 진행(4회)**

- 주민과 청년이 협심하여 피란민촌 풍경, 주민추억 그림 그리기

7월

**복현 그림마당 굿즈 제작 워크숍**

- 피란민촌을 기억할 수 있는 굿즈 개발에 대한 제작 방향 기획  
- 청년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굿즈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진행

**성과 공유회**

- 청년 · 주민 참여자 활동 소감 공유  
- 주민 참여자 그림을 활용한 굿즈 시제품 전달 및 기념사진 촬영

8월

**마을 브랜드 적용 후속 사업 기획**

- 프로그램 결과물에 마을 아카이빙 브랜드 '복현유사'를 적용한 마을 굿즈 기획  
- 제작방향 및 홍보 · 크라우드 펀딩 기획

9월

**복현유사 굿즈 제작**

- 마을 굿즈 품목 확정 및 디자인  
- 제품(2022 복현유사 달력, 스마트톡) 제작 진행

10월

**크라우드 펀딩 기획**

- 마을 굿즈 크라우드 펀딩 기획 및 수익금 활용계획 수립  
- 펀딩 목적, 예산, 일정, 선물 구성, 설명 등 크라우드 펀딩(텀블벅) 준비

11월

**홍보**

- 크라우드 펀딩 판매 진행 및 홍보  
- 관련기관, 지역주민 홍보 및 배포

마을 굿즈 개발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현장실사



간담회



사업 선정 협약식



주민협의체&유니에즈 간담회



북현 그림마당 세부계획 논의



최종점검 간담회



북현 그림마당 프로그램 진행



북현 그림마당 결산회의



북현유사 굿즈 제작회의



## 1주차, 첫 만남 (2021. 6. 18)

첫 만남은 언제나 어색하다. 청년들과 어르신도 마찬가지였다. 이 쏜쏜 언 분위기를 깨기 위해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첫 대면은 부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노란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르신들이 처음 받은 미션이다. 노란색의 무언가를 떠올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 먼저 노란색 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 청년들과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가을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꽃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병아리를 떠올렸다. 같은 노란색이지만 각기 다른 노란색의 무언가를 떠올렸다.

그림 그리기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부채 앞에서 머뭇거렸다. 붓을 처음 잡아보았거나 그림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청년들이 붓을 잡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옆에서 할 수 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명, 두 명씩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고 이내 모두가 열중해서 부채에 자신만의 노란색 생각을 그렸다.

청년들은 그 노란색 무언가와 관련된 추억과 기억에 대해 질문하며, 어르신들의 추억에 대해 들었다. 완성되었을 때, 부채 속에는 각기 다른 노란색 그림이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노란색에 관련된 어르신들의 기억과 추억도 담겨 있었다.

어느 한 어르신은 노란색을 보면 가을이 떠오르고 팔공산에 있는 집이 떠오른다고 한다. 팔공산에 있는 집에는 잔디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에는 도베르만 강아지와 또 다른 강아지가 뛰어논다고 한다. 부채 속 그림 하나에 어르신마다 다른 기억과 추억이 들어 있었다.

## 2주차, 흔적 남기기 (2021. 6. 25)

두 번째 만남이 이어지는 시간, 이날은 본격적으로 복현동에 관련된 추억을 그림으로 남기는 시간이다. ‘복현동과 관련된 추억을 이야기하고 그려주세요’ 어김없이 미션이 주어졌다.

어르신들에게는 앞에 놓인 하얀 캔버스는 어떻게 채울지 모르는 무수한 질문과 같았다. 오랜 세월을 지내 온 만큼 어느 한순간을 그리기 어려웠던 건 아닐까. 오늘도 역시 청년과 어르신들 간 대화로 시작했다.

‘복현동에는 어떤 추억들이 있을까?’

기억에 남는 장면들에 대해 청년들이 물었다. 어르신들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차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다. 옛날 경북대에 산이 있었다는 이야기, 우물 옆에 있는 집에서 10가구가 방 하나에 부엌을 놓고 살았다는 이야기, 이웃들과 함께 비누를 만들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눔을 했다는 이야기. 질문 하나로 복현동의 많은 단편들을 들을 수 있었다.

대화를 바탕으로 연필을 들고 하얀 캔버스에 물음에 대한 답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첫 획을 긋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획을 긋고 나니 자연스럽게 연필이 움직였다. 그림을 그리다가 막혔을 때는 다시 대화로 돌아와 청년들이 던지는 물음에 답변해나가며 다시 그림을 그렸다. 이야기와 함께 스케치를 완성해갔다.

### 3주차, 기억 또렷하게 남기기 (2021. 7. 2)

세 번째 만남이 이어지는 시간, 지난 시간에 남겼던 기억의 흔적을 하나씩 색칠해나가는 시간이다. 부채를 그리며 붓을 한번 잡아보았기에 색칠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복현동의 추억은 어떤 색이었을까?’

지난 시간에 완성된 스케치를 보며, 오늘도 대화를 시작했다. 청년들의 ‘이거는 어떤 색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도랑 색은 갈색, 우물은 회색, 물은 파란색, 하나씩 말씀하시며 물감을 달라고 하셨다. 그렇게 하나씩 색칠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어떤 색상인지 기억이 안 날 때는 본인들이 칠하고 싶은 색상으로 칠하게 청년들이 도와줬다.

흐릿한 기억이 대화를 통해 조금씩 색이 입혀져 또렷해졌다. 청년들은 더 깊은 추억의 색깔을 끌어내기 위해 자세하게 질문했다. 장독대엔 어떤 음식이 들어 있는지, 그림의 솔에는 어떤 음식이 있는지 등 지난번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난 시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아주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어르신들의 복현동 기억은 색을 더해 또렷하게 완성되었다. 지난 시간과 같은 추억이지만, 색깔을 입히며 하는 대화는 스케치할 때의 대화보다 더 깊고 구체적이었다.

### 4주차, 기억 모으기 (2021. 7. 9)

또렷하게 남겨진 어르신들의 복현동 추억이 완성되었다. 이 기억들을 어떻게 하면 잘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굿즈로 제작했다. 어르신들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이 굿즈가 아닐까 싶다. 머그컵, 스마트톡, 거울 버튼에 본인이 그린 그림을 입혔다.

‘마지막 시간’

길지만 짧은 3회차의 시간이 끝나고, 공유회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그림이 담긴 굿즈를 받았다. 평면의 그림에 담긴 추억이 입체적인 추억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이 담긴 물건을 받아본 어르신들은 뿌듯함과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마지막 시간을 아름답게 기억하기 위해 사진작가님이 오셨다. 자신의 추억이 담긴 그림을 들고 사진을 찍기 위함이다. 배경지를 세팅하고 수줍게 자신의 추억을 들고 카메라 앞으로 섰다. 그렇게 마지막 회차는 이 프로그램의 추억을 각자가 기록하는 걸로 마무리되었다.



# 노란색,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 1

## 회차 (2021. 6. 18)

청년들과 어르신의 어색하지만 설레는 첫 만남. ‘부채에 그림 그리기’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앞으로 만날 청년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붓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의 주제는 ‘노란색’

각자 떠오르는 자신만의 ‘노란색’을 부채에 그려나갔다.

같은 노란색이지만 다른 기억, 다른 추억, 다른 생각들이 담겨있었다.









...것인가? 나린은  
 현암을 구경하고  
 고운 지태에 마음을  
 ...가 눈앞에 아른거려  
 ...암에 희의를 느끼고  
 된다. 이러한 사실을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나게 된다.





을 짓고 도로를 만들면서  
을 거예요.

은 학교로 가는 오르막  
다. 지금도 까만 시멘트를  
바위를 볼 수 있을까요?  
본 그때의 복현마을

것일까? 불을 만나면 뜨겁고 부드러워지고, 식  
차갑고 단단한데. 하지만 그것들은 복현 마을에서  
것이 아니잖아. 참으로 어렵구나."

"아이고, 신들이 다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못  
찾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건?"

덕이는 마당의 흙을 자... 않습니다. 복현  
마을의 붉은 돌산... 그것을  
손에 쥐고 한... 으며  
소리쳤습니다

"맞아! 이 흙...  
부드럽고 윤택...  
뜨거워...  
이...



## 북현동에서 어떤 추억이 있나요?

### 2 회차 (2021. 6. 25)

어르신들이 과거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캔버스에 그리는 시간. 하얀 캔버스 위에 기억에 남는 추억을 하나씩 꺼내어 그렸다. 비누를 만들었던 기억, 담장에 키웠던 식물에 대한 기억, 이웃들과 모여 음식을 해 먹으며 놀았던 기억 등 다양한 기억들이 캔버스를 채워나갔다. 청년들과 대화를 하며 오래전에 추억했던 흐릿한 기억을 캔버스 위에 다 흔적으로 남겼다.













## 추억은 어떤 색이었나요?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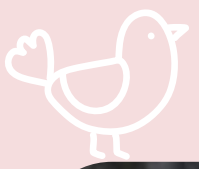
### 회차 (2021. 7. 2)

연필로 남겼던 추억의 흔적에 색을 더하는 시간. 추억의 색을 떠올리며 캔버스를 칠해나갔다. 물감을 서로 더해 새로운 색을 만들기도 하고, 붓이 아닌 유화용 나이프로 물감을 덧바르기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색칠해갔다. 캔버스에 색을 칠해갈수록 청년과 어르신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추억은 더 또렷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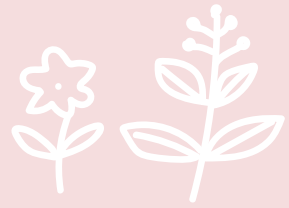


















## 성과공유회



# 4

### 회차(2021. 7. 9)

그림으로 완성한 어르신들의 추억이 굿즈로 탄생하는 시간. 머그컵, 스마트톡, 거울버튼으로 재탄생했다. 다양한 추억들이 담긴 굿즈들이 하나, 둘씩 모여 복현동의 옛 모습을 완성했다. 함께한 주민, 청년들과 나누며 활동 소감을 발표하고 예쁜 꽃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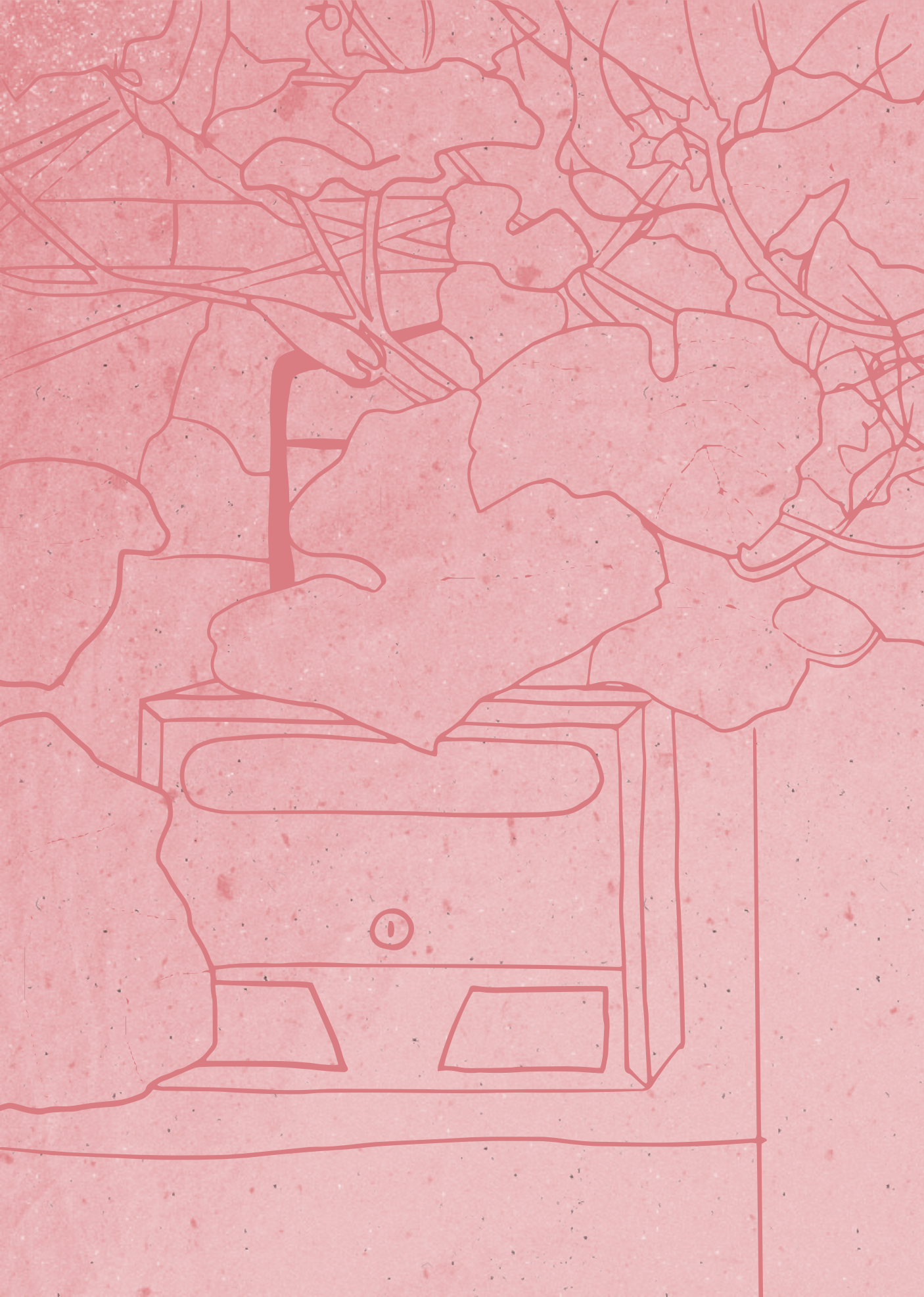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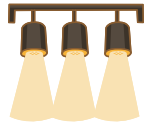






# 복현畫

복현을 담은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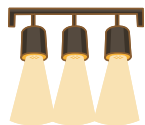


## 강순덕

이웃 주민들과 함께 윷놀이하며 놀고  
음식을 나누어 먹던 모습이 떠올라.

힘들 때 서로 도와주며 정을 나누고 화합을 이루는 따뜻한 시절이었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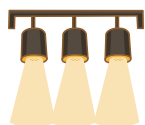




## 강승자

13평이 되는 집에 8명이 10년 동안 함께 살다가  
나랑 영감이 옆집으로 이사를 갔지.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새 집이 지어지면  
영감이랑 같이 살고 싶었는데 1년 전에 먼저 떠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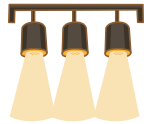
## 권영순

예전엔 부녀회 사람들이랑 모여서 담소를 나누며

폐식용유와 양젯물로 비누를 만들곤 했지.

비누는 빨래할 때랑 머리 감을 때 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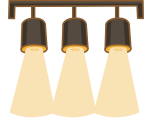
또다시 비누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네.



## 백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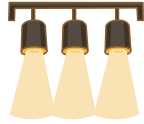
폐지를 주우며 일을 하는데 운동 삼아 동네를 돌아다녔지.  
일을 마치고 오면 마당 채소로 반찬을 해서 아들과 밥을 먹었어.  
감나무를 심었었는데 어느덧 자란 나무는 서른 살의 청년이 되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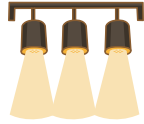
## 이 말순

한 지붕 아래 열다섯 집이 모여 살았어.  
근처에 아주 깊은 우물이 있었는데 바가지를 사용해서 물을 받았지.  
둘째가 아팠을 때 50분 되는 거리를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줬었어.



## 이순자

집 앞에는 우물, 집 뒤에는 산이 있었어.  
남편이 호박을 심었었는데 집 마당에 모아 두었다가 이웃집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면 매우 좋아하셨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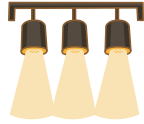


## 장복희

겨우내 자란 호박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장독대에는 간장, 된장 오만가지가 다 들어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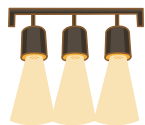
펌프랑 도랑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 농작물이 잘 자랐어.  
그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은 밍키였는데 그 이유는 밍크코트가 귀해서야.





## 한 영 자

땅이 고르지 않아서 장화 없이는 살기 힘들었어.  
동네에 물 길을 데가 없어서 동촌강에 모여 빨래도 많이 하고,  
하루에 2번씩 물을 받으러 가기도 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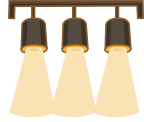
## 허영숙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장을 보러 다닐 때 다니던 골목이야.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러 가던 골목이기도 해.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었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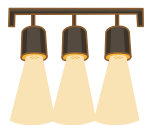
그때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네.



## 이주은

높은 건물 뒤로 비치는 햇살을 따라 걸어보는 동네 골목길.  
구불구불 미로 속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보이는 우리 삶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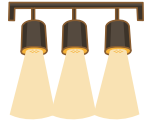


## 이 현 민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사잇길이다.

새로이 탄생할 이곳에 이주를 고민하는 고양이 가족.

그들은 다시 이곳으로 찾아올까?



## 최서현

나와 타인의 삶이 한공간에 머무는 아주 좁은 길.

허나 살아온 세월만큼 넓게 퍼진 인연의 길.

오늘 이 길에서 피란민촌 기억의 색을 담아본다.









# 복원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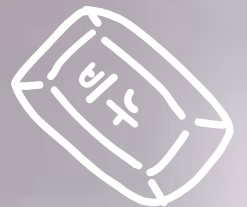
꽃을 피우는 사람들

# 강순덕





권영순 \*





백순월



이 밭 순



이순진





# 장복희



한영진



허명숙





복현 그림마당  
바공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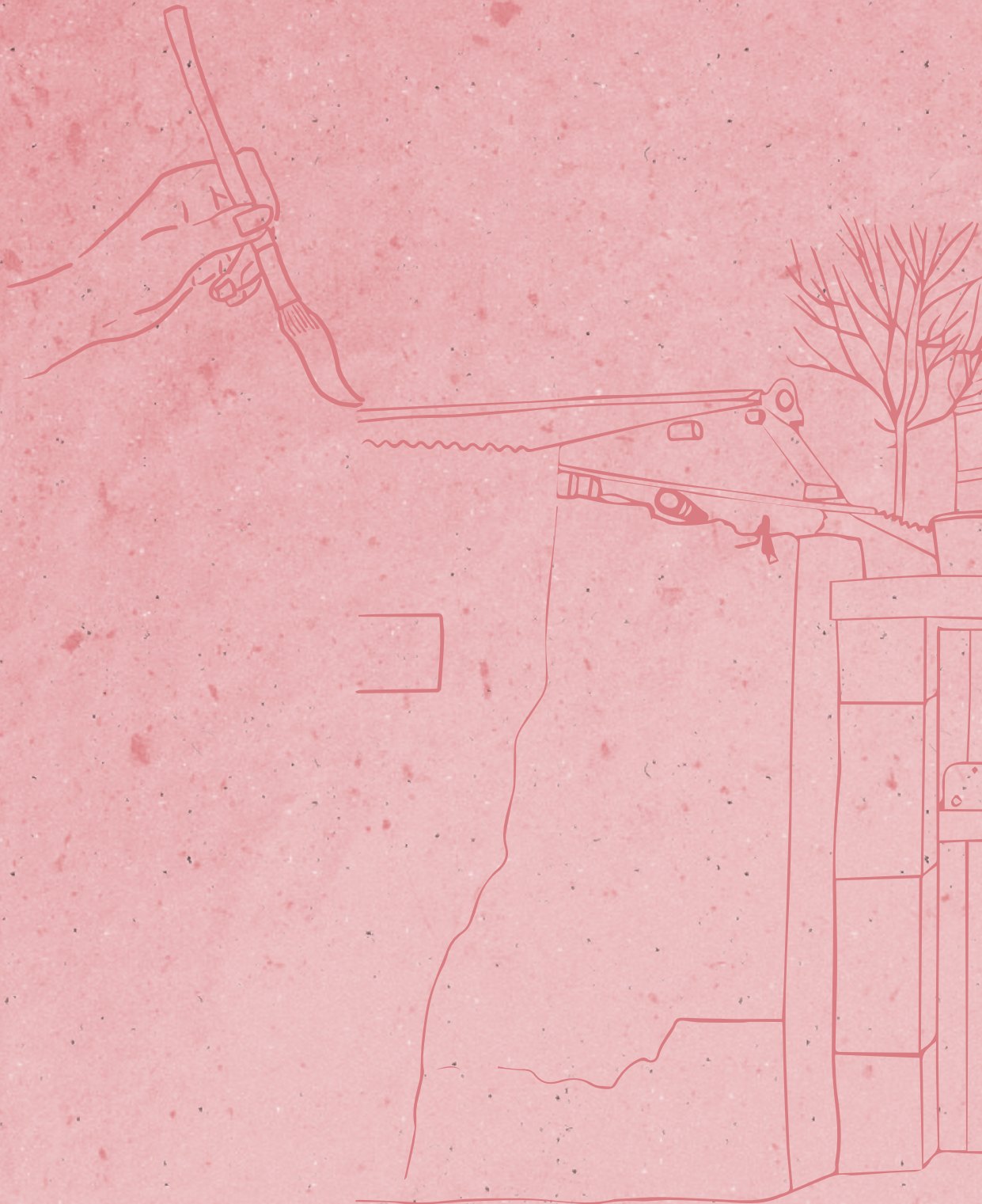




피란민촌,  
오늘의 기억을 담다









# 복현話

청년들이 그린 복현이야기





## 유니에즈는?



“주체가 되어 나눔을 실천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청년의 기획, 참여 활동을 통해 주체성을 실현하고 활동을 통해 사회 나눔을 실천합니다.



사회 변화를 위한 리빙랩, 자발적인 기획, 해외봉사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2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이 아닌 주체자 시점으로 진행하여 참여자들의 흥미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며, 이는 곧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2019년도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자원봉사단체 부분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 받았습니다.

# 복현동과 함께 걸어온 길.



· 주민 청년 세대공감 네트워크 36.5° / 추운 겨울, 청년들과 어르신 덕에 방문하여 뽕뽕이 및 문풍지 설치



· 피란민촌 응원 프로젝트 / 청년, 마을주민과 함께 손소독제와 마스크걸이를 제작하여 어르신들에게 기부



· 우리가 꿈꾸는 복현마을 / 지역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모습을 3D모델링을 통해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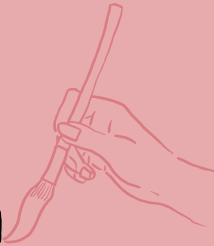


· 기억하는 마을, 꿈꾸는 마을 / 마을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3D프린팅을 통해 표현



# 기억을 담다

- 김민서



저는 많은 사람이 그렇듯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아니 어려워합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랬던 제가, 새로운 사람 연고도 전혀 없는 어르신들을 만나 함께 소통하고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니 걱정되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워크숍에 참여해서 만난 어머님들은 인상이 푸근하고 익숙했습니다. 제 할머니를 보는듯했기에 마음이 편하기도 했지만 걱정도 되는 마음으로 권영순 어머님과 허영숙 어머님을 뵈었습니다. 어색하게 꾸벅 인사드리는 저를 반기며 미소 지으시던 어머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어머님들께서 미숙하게 미술도구를 잡으시는 걸 보곤 그림을 그렸던 경험이 많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붓과 물감들을 사용하게 해드리기 위해 원하는 색은 없으신지, 그리고 싶은 것은 없으신지 여쭙었습니다.

부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노란색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여쭙보고, 저는 노란색을 생각하면 나비, 병아리, 꽃, 유채꽃, 어린이가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순 어머님께선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연꽃을 그리고 그 주변에 작은 나비를 그리셨습니다. 허영숙 어머님은 빨간 꽃, 노랑꽃을 그리고 주변에 작은 나비를 그리셨습니다. 처음 그린 자신만의 부채를 소중하게 가져가셨죠.

북현동에서의 추억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어머님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라 어렵지만 노력하시는 모습들에 저는 감동하고 감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허영숙 어머님께서서는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안에 전시되어 있던 북현동의 사진과 북현동의 추억이 글과 사진으로 나와 있는 책자를 보며 마을 골목길을 그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학교 보내거나 장 보러 다닐 때 다니셨던 골목. 이웃들과 함께 웃고 울며 담소를 나눴던 그 골목. 익숙하고 눈 감아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그곳.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었지만 그리는 과정에서 다시 소중함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집 앞 목욕 대야에 대추나무를 심어 길렀고, 빨간 제라늄도 키우셨던 소중한 장소입니다. 어머님께서 키우시는 수염이 있는 하얀 고양이 베르도 그렸어요. 어머님께서서는 베르가 포인트라고 하십니다.

권영숙 어머님께서서는 부녀회 어르신들과 모여 비누를 만드는 모습을 그리셨습니다. 폐기름과 양젓물로 만드는 비누는 향이 안 나서 쓰기 좋았고 재료를 섞으며 부녀회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 수익금을 활용해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를 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비누 만들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덧 긴장한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선 북현동에 관한 좋은 추억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닥다닥 집이 붙어있기에 한 집 건널 필요 없이 모두가 아는 사람이라 합니다. 각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가까이 지내셨고 반찬을 많이 만들면 다른 집에 찾아가 나눠주기도 하고 한 마루에 다 같이 모여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며 다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셨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살며 바로 옆집과도 소통이 없는 저에겐 그 광경이 웃음이 나오고 비누 냄새가 나는 추억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지막 날, 정신없이 빠르게 흐르던 지난번과는 달리, 카메라 사진들처럼 시간이 찰칵찰칵하며 천천히 흘렀습니다. 어르신께 직접 그리신 그림으로 제작된 컵과 스마트 톡, 거울을 드렸습니다. 모두 함께 사진을 찍을 땐, 짧은 만남이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4주 동안 복현 그림마당을 함께하면서,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 새로운 경험과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르신들과 나눴던 복현동의 소중한 기억과 추억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편에 남아 먼 훗날 웃으며 이야기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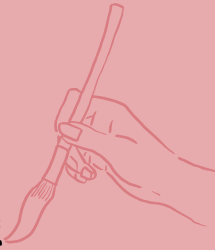


권영순 어르신, 허영숙 어르신과 김민서 청년



## 그때 그랬지

- 김용현



강순덕 어르신은 87년도에 복현동에 오셨습니다. 어르신이 젊으셨을 때입니다. 동네 어르신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모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장소는 어르신들 집을 돌아가며 모이셨대요.

어르신들은 포틀럭 파티처럼 누구는 밀가루, 누구는 채소 등 각자 재료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오전에 양재기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웃들이 모였고, 돌아가면서 요리 당번을 맡아 연탄불에 찹 솔 같은 솔을 올려 요리를 했습니다. 주로 국수와 비빔밥 등을 해서 드셨습니다. 어르신은 국수 면 미는 법을 안 배워서 국수 만드는 법을 모르셨지만 모임 중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고, 그분이 해주신 칼국수가 참 맛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다른 어르신들은 놀이를 하셨는데 주로 싸리나무로 만든 윷놀이를 즐겨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놀이 기구나 게임기 등 다른 놀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그림을 그리시는데 노란색이라 하면 가을을 떠올리셨고 가을이면 계수나무와 팔공산 집에 있는 소나무를 생각하셨습니다. 집앞 잔디마당에서 강아지 2마리가 뛰어놀고 창고에는 50마리가 넘는 닭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는 소나무가 자리 잡고 있고 마당에서 상추, 고추, 오이 등등 텃밭을 가꾸며 생활하신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자신은 부엌에서 솥으로 요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림 속 다른 어르신들에 비해 젊었고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뿌듯하고 기분이 제일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학교에 요청하여 안 입는 옷 한 벌씩 가져와 달라고 가정통신문을 돌려 옷을 모아 팔았고, 폐기름으로 비누도 만들어 팔아서 수익금을 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경로당에 밥해주기, 미용하기, 반찬 해주기 등 동네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강순덕 어르신께서 이 그림을 그린 이유의 이웃이 경제적이거나 상황적으로 좋지 않을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정을 나누고 화합을 이루는 따뜻한 시절이 그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보다 남들을 더 신경 쓰며 다른 어르신들과 봉사활동을 하며 남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로 들으며 어르신에 대해 존경심을 키워나갔습니다. 요즘에는 선뜻 남을 위해 먼저 나서고 도와주기란 찾아보기 어렵고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강순덕 어르신은 처음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많이 보조하고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어르신께서는 색을 직접 고르시고 그림과 색칠까지 별다른 도움 없이 혼자서 완성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처음 하는 일이지만 못한다고 포기하기보다는 ‘한번 도전해 보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르신은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세세히 알려주시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며, 봉사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또한 나보다 어리더라도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귀찮아하거나 화내기보다는 이해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현 그림마당을 통해 많은 것을 반성하고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덕 어르신과 김용현 청년



# 행복한 시간, 소중한 경험

- 김지호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더 경험해보고자 복현 그림마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월 18일 긴장과 설렘을 가지고 소개 및 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어르신들을 한 분씩 맞이하였습니다.

4주간 저와 함께 활동을 같이 할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 아이스브레이킹을 시작하였습니다. 용지에 있는 동그라미, 세모 등에 따라 색을 칠하며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어색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면 좋을까’, 어떻게 진행하면 괜찮을까 하며 노란색을 보면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 본 후 부채에 그려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나비와 꽃, 참외를 떠올리셨고,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댁에 놀러 가 마루에 앉아 가족들과 같이 참외를 먹고, 논밭에서 나비를 보았던 추억을 공유하였더니 이순자 어르신께서 흥미롭게 들어주셨고,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졌고, 꾸밈없는 자연스러움이 라포 형성에 가장 기초이자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어르신들의 추억을 발굴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본인의 추억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활동보다 이 활동을 어려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결과를 보여야 했기에 어떻게든 어르신의 추억을 끄집어내려 애썼고, 이를 조금이라도 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어르신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과정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깨닫고 결과 도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참고 자료를 어르신과 살펴보며 대화를 하던 와중 어르신께서 옛날에 안동에서 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안동은 부모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이고, 조부모님들께서 안동에 계속 살고 계셨기에 저는 안동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르신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안동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며 남편과 자녀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고, 집 뒤에 있는 산에 남편께서 호박 씨앗을 뿌려 호박을 키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으로는 ‘나는 못한다.’, ‘소질이 없다.’하셨지만 하실 수 있다고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해드렸더니 ‘한번 해봐야 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평소 자신 없거나 하고 싶지 않으면 포기하던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지으셨던 미소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호박이 아주 잘 자라 많이 열려 집 앞마당에 수북하게 쌓아두셨다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호박을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아 조금만 두고 옆집에 사시는 남편분의 동창 어머니께 호박을 많이 가져다드렸는데, 호박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고마워하시며 호박을 이용한 많은 음식을 하시며 맛있게 드셨다 하셨습니다.

복현 그림마당에 참여하여 어르신의 기억을 그리는 활동은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도움과 관심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선택하고 전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봉사하며 다짐했던 마음가짐과 복지를 전공하며 다짐했던 생각들은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주간의 활동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그중에서도 왜 노인복지를 하고 싶었는가를 조금이나마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복현 그림마당을 통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을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과연 내가 현장에서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미소와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시는 모습은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된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4주차에 어르신께서 먼저 저를 찾아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심에 많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다시 만나요.’, ‘고마웠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 일선 현장에서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마다 어르신들의 순수한 미소, 소중한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과 감정을 떠올리며 좋은 일 하는 사람만이 아닌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로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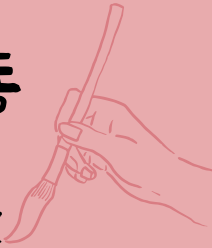


이순자 어르신과 김지호 청년



## 20대의 복현동

- 나을



한영자 어르신의 20대 시절 복현동과 나의 20대의 복현동, 같은 장소지만 너무나도 달랐던 마을의 모습에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당연해 편리한지도 몰랐던 수도와 전기가 어르신의 기억에서는 집에 수도,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아서 손뼉을 치고 잠도 못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현동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필수 생활용품이었던 장화가 필요 없어진 만큼 복현동은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 된 것 같습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장복희 어르신과의 대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토란이 뿌리채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토란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서 단 한 번도 이건 무슨 채소인지,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 잎은 무슨 모양인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림의 왼쪽 하단의 초록색 부분을 보시며 ‘이거 토란잎 같아요?’라고 어르신이 질문하셨을 때 나는 순간 ‘토란잎이 어떻게 생긴 거죠?’라고 어르신께 다시 질문을 해버렸습니다. 어르신에겐 당연했던 것들이 저에게는 생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저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어르신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20대 한영자 어르신의 복현동

20대쯤 복현동에 처음 오셨다고 했습니다.

판잣집 지붕은 양철 색, 집을 판자가 둘러싸고 있었고, 버스는 한 대 있었는데 배차간격이 51분이었다고 합니다.

골목이 좁아 택시가 복현동에 안 들어 오려고 했고, 전기도 수도도 없어서 공동 수도에 새벽부터 줄을 서서 물을 받아 사용하고, 동촌 강에 가서 빨래를 해야 하는 시절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땅이 진흙이어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경북대에 산이 있었는데 소나무가 많이 있어 산책하러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 20대 나울의 복현동

저는 2020년도 23살에 처음 복현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월세도 싸고, 버스 정류장도 많아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동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동네에 경북대와 영진전문대, 금호강이 있어 공기도 좋고 산책할 수 있는 곳이 많고, 근처에 대구공항도 있어 택시도 잘 잡혀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동성로에 가기 편했습니다. 원룸촌이어서 코인 빨래방이 많아 빨래하기 편하였습니다.

---

## 20대 장복희 어르신의 복현동

담장 위에 호박으로 겨우내 음식 만들어 드시고, 장독대에 간장, 고추장, 된장, 장아찌 등등 오만 가지를 다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펌프에서 물을 직접 길어 사용하시고, 옆에서 가지, 토란 등등 농작물을 직접 키우셨다고 합니다. 직접 키운 야채로 국 끓여먹고, 나물 만들어 먹으며 가족들과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흰색 고무신을 자주 신고 다니며 키우던 강아지 밍키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 20대 나울의 복현동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 시켜서 밥을 먹고, 물은 쿠팡으로 주문하여 먹습니다. 키우는 강아지는 비송프리제이고, 이름은 나이백입니다.

한영자 어르신과 장복희 어르신의 20대와 저의 20대에서는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배운 점은 정말 많았습니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던 경북대의 옛날 모습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삶을 내가 생생하게 체험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벌써 5,60년 이상 지난 옛 추억을 마치 지금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것처럼 기억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누구에게나 추억은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었고 그전까지만 해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저와는 다른 세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한영자 어르신, 장복희 어르신과 나울 청년



##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행복

- 윤자경



해야 할 일들이 꽤 마무리되고 주위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겨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미루어 왔던 봉사가 생각났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가 많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던 봉사가 이번에 참여한 ‘복현 그림마당’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매주 어르신을 만나면서 어르신과 소통하는 봉사라는 점이 좋았고, 무엇보다 그림에 자신은 없었지만 미술전공자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내용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복현1동의 피란민촌을 정비하고 새로운 가로등과 마을 안심길, 복현 어울림센터, 복지소 등의 건물이 생겨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데, 주민들과 마을의 모습을 남기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역할은 마을 주민분과 함께 그림을 통해 피란민촌의 모습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추억을 그림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천천히 도와드렸습니다.

붓으로 도형 따라그리기, 물감으로 채색하기, 반원 부채에 그리고 싶은 소재를 그려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첫날이라 그런지 어르신은 ‘어렵다,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해요’ 하시며 자신 없어 하셨지만 왠지 모르게 신나하셨습니다. 천천히 알려드리니 어르신도 잘 따라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스케치를 해야 했습니다.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며 추억을 이끌어 내고 추억 중의 한 부분을 그림에 그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동네에 오시게 되었는지, 오셨을 때 마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어떤 일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는지’ 등을 여쭙어보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초반과 마찬가지로 부끄럽고 쑥스러워 하셨고,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추억을 되새기는 일로 첫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어르신을 뵈었을 때는 지난번보다 한층 밝아 보이셨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활동에도 익숙해진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직접 스케치를 하실 때 힘들어하신 부분은 예시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서 보여드렸고, 어르신들은 그것을 보며 그림을 그려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여전히 자신감이 많진 않으셨지만 그려보려고 시도하시는 모습이 큰 진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케치하면서도 계속 말을 걸어드리고 지금 그리시는 집은 어떤 집이었는지, 감나무에는 어떤 추억이 섞여있으신지 여쭙어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시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더 신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끝낸 스케치에 채색을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며 적극적으로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색 또한 열심히 하셨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전보다 붓을 다루는 손이 자연스러워 지셨습니다. 색감을 고를 때도, 붓에 묻혀서 채색을 하실 때도 거침없이 쪽쪽 하시는 모습을 보고 ‘혹시 연습하고 오셨어요? 너무 잘하세요.’라고 여쭙어볼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셨습니다. 나무 기둥도 색칠하시고, 감도 색칠하시고 세밀하게 점점 색감을 진하게 사용하시면서 명암도 넣어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배경 채색에 꽃까지 그려 넣으시면서 만족스럽게 그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어르신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는 집과 마당을 그려내셨고, 엄청 만족해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엔 주최측에서 어르신들이 완성한 그림을 컵과 손거울, 스마트톡으로 만들어주셨고, 어르신은 그걸 보며 많이 뿌듯해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그림과 선물 받으신 꽃을 들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개인 사진촬영을 했고 다 같이 모여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웃으며 박수도 쳤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이 나면서 그동안 어르신과 함께했던 활동들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엔 자신 없어 했던 일을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위의 다른 어르신들, 멀리 생각하지 않고도 가까운 나의 부모님도 이렇게 새로운 활동을 해보고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면 더 즐거우실 수 있을 텐데 생각하며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했습니다. 모르던 어르신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경험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을 했고, 앞으로 어느 곳에서나 다른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더라도 이 경험이 상대방과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완성한 그림이 나중에 피란민촌이 더 발전되고 전시관이 세워져서 전시되었을 때, 어르신이 더 행복하고 뿌듯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기획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또 다른 활동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인 자세로 다시 한 번 더 참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월 어르신과 윤자경 청년



# 같은 공간, 다른 시간

- 제갈동호



경북대학교를 7년간 다니면서 복현동은 내게 익숙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테크노파크 근처에서 자취를 한 경험도 있고, 복현동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참가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과 대화하며 어르신들은 제가 봐왔던 풍경들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경북대에 무덤이 있었다는 것과 도로포장이 되어있지 않아 비가 오면 장화를 꼭 신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체감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 어르신들이 사셨던 과거의 동네가 계속 궁금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전기와 수도도 녹록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촛불로 불을 밝히고, 수도가 없어 하루에 두 번이나 물을 길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수도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대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돌아가라면 절대로 적응 못 할 것 같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은 곳곳이 생활하여 지금까지도 환경에 적응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옛날 동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엿들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복현동에 오게 된 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계기였습니다.

북현동에 오기 전 정말 잘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300평이 가까이 되는 집에서 사시다가 사업이 잘 못 되어 북현동에 12평 남짓 한 집을 구해 살게 되었는데, 남부럽지 않을 환경에서 한 순간에 좁은 집에 8명이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가슴에 응어리가 한 움큼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작은 집에서 가족을 위해 가정 살림을 도맡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아들의 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낯은 환경에서 할머니는 북현동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의 만남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중한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즐거운 경험들을 이번 활동을 계기로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느낀 점은 어르신들이 쓰는 언어를 완벽하게 알아듣기 힘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도지’, ‘다이루’처럼 낯선 단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나 봅니다. 제 표정을 보고선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하셨고, ‘옆에 할머니에게 이 단어 뭔지 알제?’라고 하시면 옆에 계신 할머니 또한 그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단어를 알아듣게 되면 뭔가 할머니들과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지’는 ‘전세’라는 뜻이고 ‘다이루’는 ‘타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평생 그 단어를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할머니 나이가 되어있을 땐 아예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단어를 발굴하고 단어의 의미를 이해했을 때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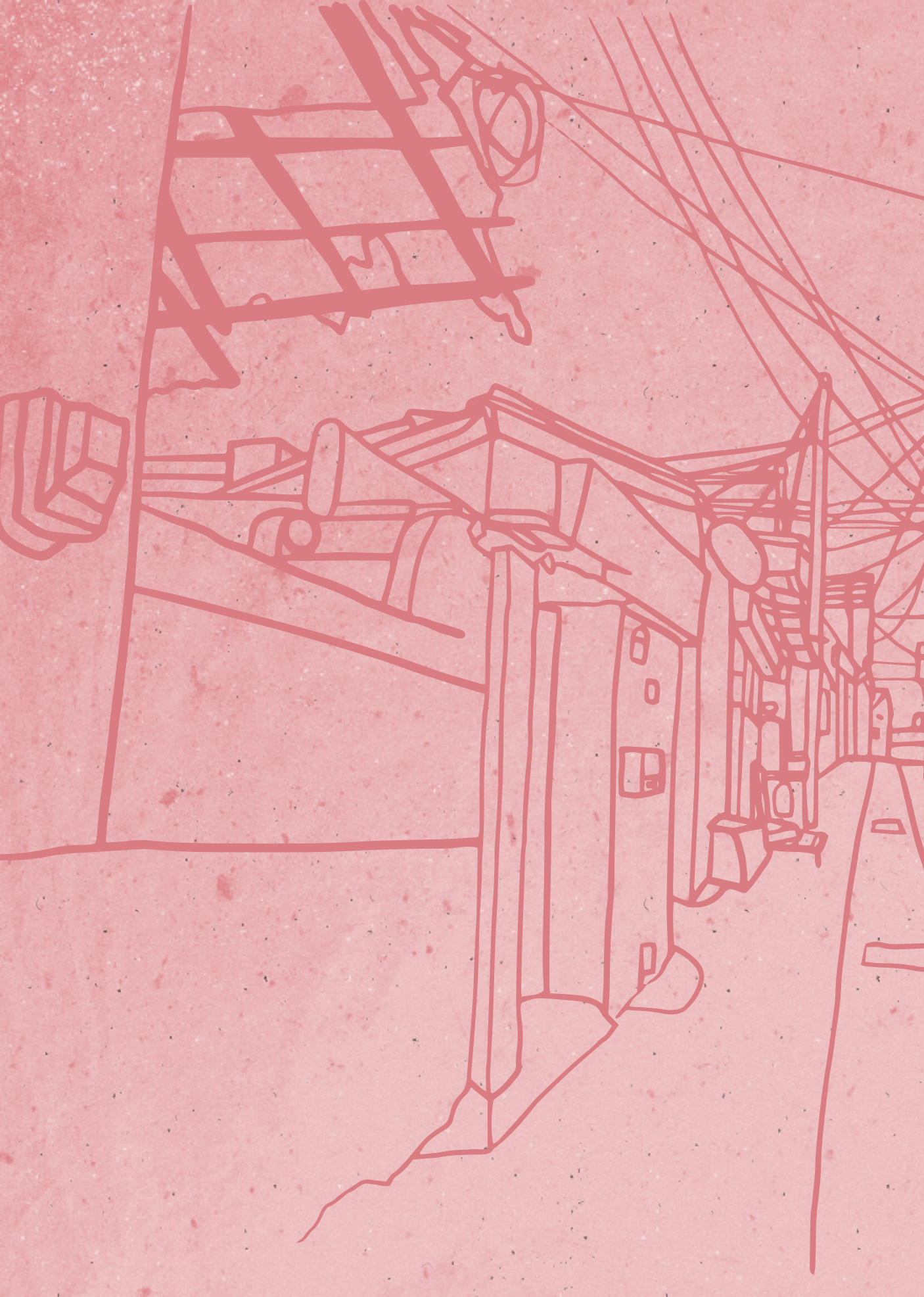
함께 그림 그리기를 할 때면 어르신은 자신감이 없어지셨습니다. 붓을 들거나 색을 칠할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하시며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쭙봤더니 붓을 태어나서 처음 잡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섞인 붓질이 시작되었고, 결국엔 완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의 포기 선언이 있었지만, 어르신은 그것을 이겨내고 무사히 그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전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 어르신과의 이야기는 제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들의 추억 속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르신들의 힘들지만 뿌듯했던 삶을 엿볼 수 있었고 그들의 삶 주변의 환경, 살아왔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책에서도 듣지 못할 소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중한 대화들이 추후에 변화될 복현동의 소중한 발자취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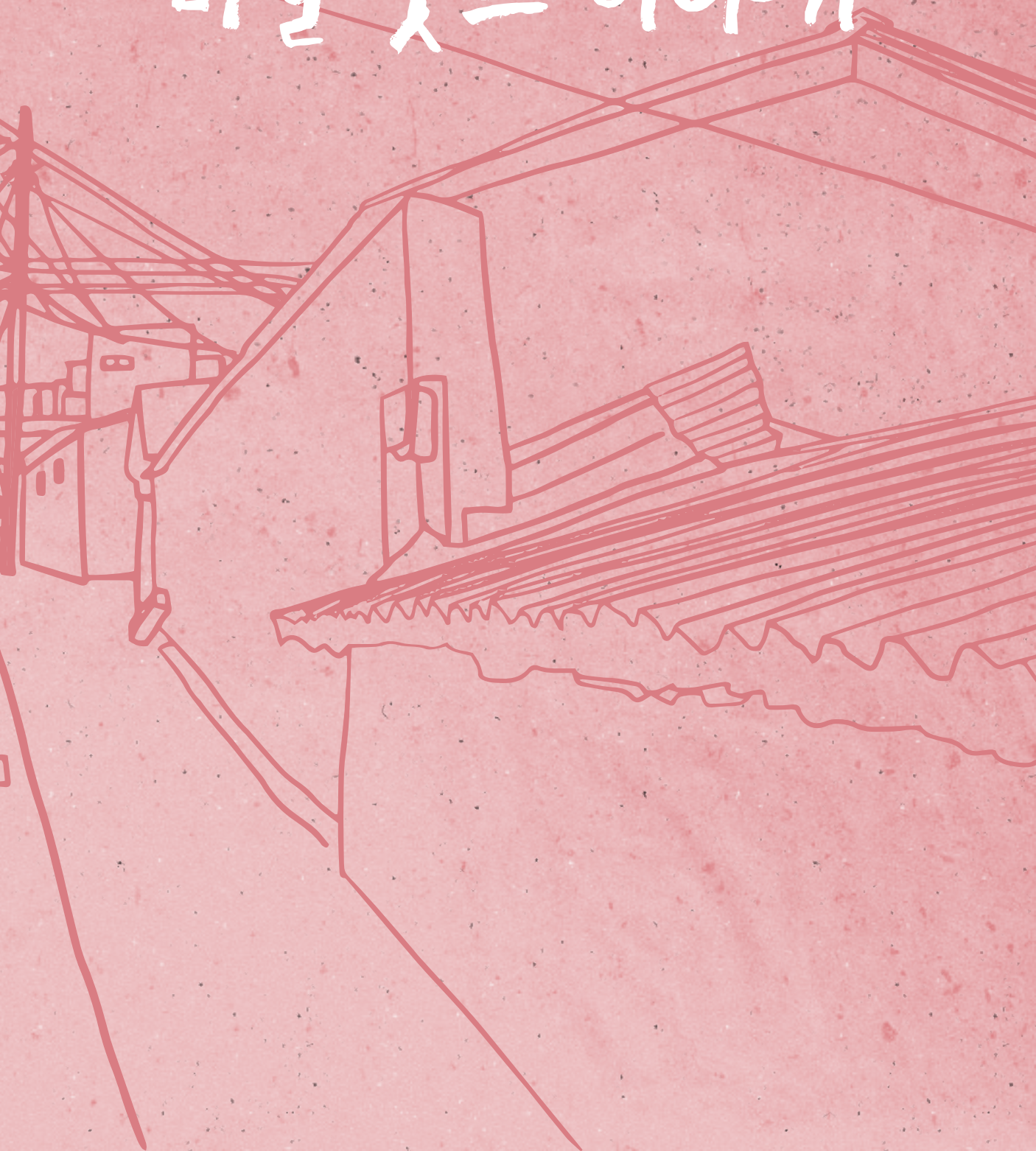
이말순 어르신과 제갈동호 청년







# 마을 굿즈 이야기



# 복현 그림마당 굿즈

· 2021년 5월 ~ 7월 : 복현 그림마당 프로그램 결과물



버튼거울







스마트북



머그컵

## 복현유사 굿즈

· 2021년 8월 ~ 10월 : 복현 그림마당 결과물을 활용하여 마을 브랜드를 적용한 굿즈 개발

### · 배경 및 목적

복현1동 피란민촌은 한국전쟁 때 대구를 가로지르는 신천 변에 자리 잡은 피란민들이 잦은 수해를 피해 이주해 왔거나, 경북대 캠퍼스가 확장되기 이전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옮겨 나오면서 무허가 취락지로 형성된 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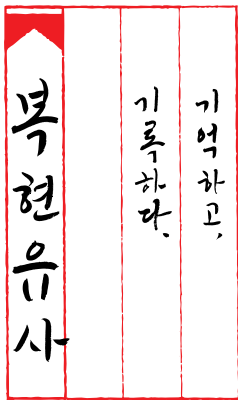
저마다 '어려움'을 피해 이곳에 정착하신 주민들은 수십 년간 함께한 집, 골목길, 낡은 대문, 이웃과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삶의 터전이었던 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또다시 이주와 재정착의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화해 가는 지역의 이야기를 주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복현유사>, <복현타작>, <복현 그림마당> 등의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미래세대의 삶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마을 스토리 자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마을굿즈로 개발하여 복현동의 기억을 널리전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으로 이어나가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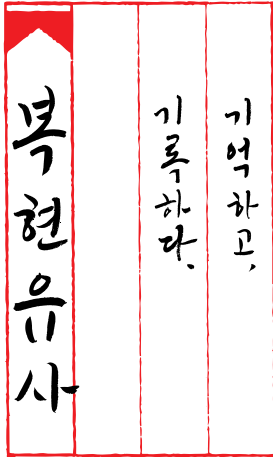


복현유사는 잊혀 가는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만든 마을 아카이빙 브랜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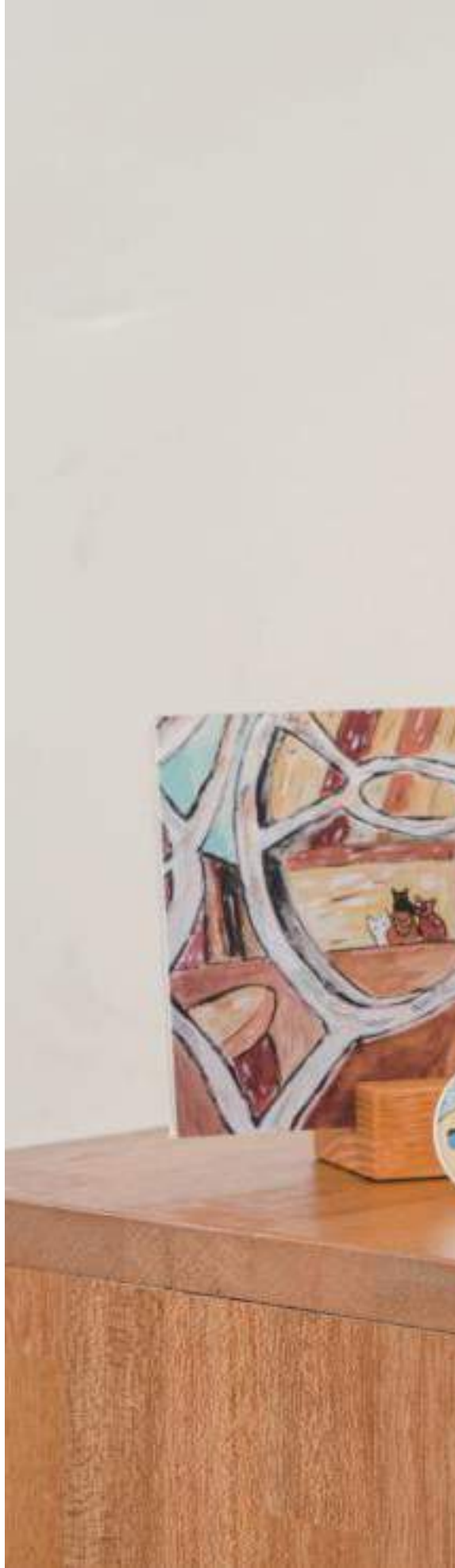
## · 제작의도

변화해가는 복현1동의 이야기를 주민과 청년이 함께 기록하여 마을 스토리 자원으로 만들었고, 이를 미래세대의 삶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굿즈로 만들어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기억하고 기록하다 #복현유사

잊혀 가는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만든 마을 아카이빙 브랜드 '복현유사'를 활용하여 피란민촌에서 어렵게 삶을 꾸려 나가는 주민들과 마을의 이야기를 굿즈에 담았습니다.





목현유사

이 책은 목현유사의 전통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책입니다. 목현유사의 전통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책입니다.

목현유사

## · 복현유사 굿즈 소개

### < 2022 복현유사 달력 >

상품구성 : 달력, 우드블럭, 스티커, 파우치

앞면은 달력이, 뒷면은 주민들의 그림과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을 순우리말로 표기하여 잊고 지냈던 아름다운 우리말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스티커와 달력으로 벽면에 장식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복현동의 따뜻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드블럭은 명함, 엽서, 사진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로 활용이 가능하고, 복현유사가 새겨진 파우치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하고, 이쪽이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하고, 이쪽이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달하고, 이쪽이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하고, 이쪽이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하고, 이쪽이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하고, 이쪽이봐.

## < 스마트톡 >

휴대폰에 붙여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생활필수품 스마트톡에 마을 이야기를 적용하여 디자인 하였습니다. 복현동 주민들의 그림을 스마트톡에, 포장 뒷면에는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p><b>복현유사</b> 복현의 이야기를 그려다</p> <p>이 그림책은 마을의 기억을 담기 위해 복현동 주민들의 그림을 모아 이야기하고 직접 그림으로 만들어졌습니다.</p> <p>이책하고, 이책과함께</p>	<p>복현1동 주민 <b>강순덕</b></p> <p>이웃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놓고 음식을 나누어 먹던 모습이 떠올라, 힘들 때 서로 도와주며 정을 나누고 화합을 이루는 따뜻한 사람들이었거든.</p>	<p>복현1동 주민 <b>강승자</b></p> <p>13명이 되는 집에 8명이 10년 동안 함께 살다가 나뉘어 떨어져 살았으므로 이사를 갔지. 어찌든 도시생활이므로 새 집이 지어진 열광이랑 같이 살고 싶었는데 1년 전에 먼저 떠났어.</p>	<p>복현1동 주민 <b>권영순</b></p> <p>예전엔 부녀회 사람들이랑 모여서 담소를 나누며 폐사용유와 장맛물로 비누를 만들곤 했지. 또다시 비누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p>	<p>복현1동 주민 <b>백순열</b></p> <p>일을 마치고 오면 마당 채소로 반찬을 해서 아들과 밥을 먹었지. 감나무를 심었는데 어느덧 자란 나무는 서른살의 청년이 되었네.</p>	<p>복현1동 주민 <b>이말순</b></p> <p>한지붕 아래 열다섯 집이 모여 살았어. 근처에 아주 길은 우물도 있었는데 바가지로 사용해서 물을 받았지. 물매가 마를 때 오심문 되는 거리를 걸어서 학교에 데려다줬었어.</p>	<p>복현1동 주민</p> <p>집 앞에는 우물도, 길 남편이 오막을 심고 모아 두었다가 이웃집에 나누어 주었다.</p>
---	--	--	---	---	---	---



이순자

뒤에는 산이 있었어.  
있었는데 집 마당에  
초신들에게 나뉘더라면  
바싹였지.



북한1동 주민 장복희

겨우네 차한 로복으로 맛있는 음식들 만들어 먹고  
장숙네에는 간성, 원장 오한가지가 다 들어있었지.  
그제 커유연 강아지 이름은 링키였는데  
그 이유는 링크로프가 귀해서야.



북한1동 주민 한영자

맘이 고르지 않아서 장화 얹어는 살기 힘들었어.  
동네에 풀 길을 매가 없어서 돌운강에 모여  
빨래도 많이 하고,  
하루에 2번씩 물을 받느라 가기도 했었지.



북한1동 주민 허영숙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장을 보러 나갈 때  
다시엔 골목이야.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었지만  
구름구름 이모 속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돼어.



코디네이터 이주은

눈은 건물 위로 비치는 햇살을 따라  
걸어보는 동네 골목길.  
구름구름 이모 속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보이는 우리 삶의 모습.



평민연인 이현민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사잇길이다.  
새로이 탄생할 이모에 어우름 고면하는  
고양이 가족.  
그들은 다시 이곳으로 찾아올까?



코디네이터 최서현

나와 타인의 삶이 한공간에 머무는 아주 좋은 길.  
하나 살아온 세월만큼 넓게 퍼진 인연의 길.  
이 길에서 오늘 피란민촌의 기억을 찾아본다.



# 크라우드 펀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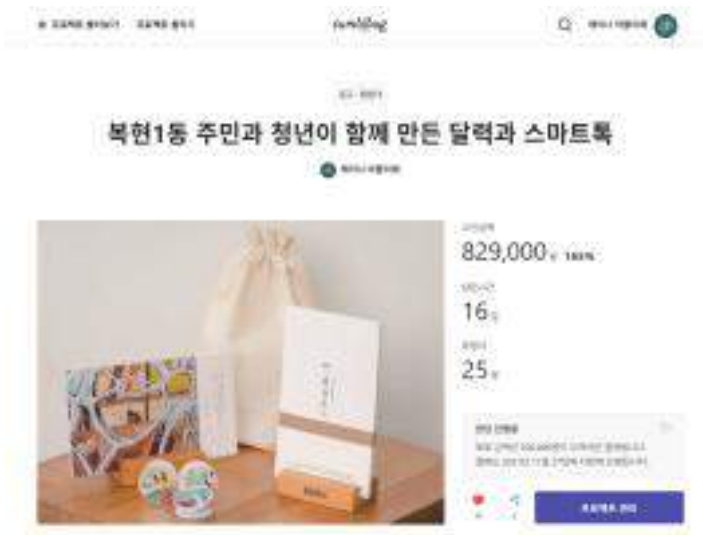
- 2021년 10월 ~ 11월 : 마을 굿즈 크라우드 펀딩 기획 및 진행, 홍보
- 프로젝트 일정 : 2021년 11월 1일(월) ~ 11월 26일(금)
- 선물구성

구분	구성	가격	기타
1	2022 복현유사 달력	18,000원	배송비
2	2022 복현유사 달력 + 스마트톡(랜덤)	25,000원	포함

※ 2022 복현유사 달력 구성 : 달력, 우드블럭, 스티커, 파우치

## · 구매사이트

<https://tumblbug.com/bh1dong>



PC버전



모바일 버전

· 홍보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보 협조기관>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 <복현 그림마당 운영>

-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최서현 팀장

복현 그림마당은 복현동 피란민촌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이어 준 가교였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이 어르신들과 청년이 서로 어려움 없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르신이 전하는 과거 이야기에 청년들이 현재의 색을 입히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 마음을 열고 각자의 시각에서 함께 바라본 과거 복현동 피란민촌의 삶을 담아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전래동화를 듣는 것처럼 호기심 가득한 청년들의 모습에 어르신들은 한발 더 다가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으셨고, 캔버스를 마주하고 주저하는 어르신들께 청년들이 먼저 다가가 손에 붓을 쥐여주었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한 작품을 굿즈로 제작하여 선물로 드렸을 때 어르신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저에게 너무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제 기억과 가슴속에 잊히지 않을 글귀를 새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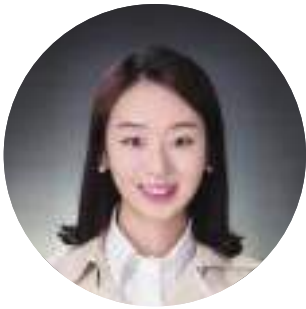
“정말 즐거웠고 함께한 어르신들을 꼭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청년의 글입니다.

복현1동 피란민촌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물리적인 환경은 변하겠지만 그 속에 깃든 오래 묵은 정은 그대로 일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어르신들과 청년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굿즈 개발 및 클라우드 펀딩 운영>

-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주은 팀장

저마다의 어려움을 피해 정착하여 수십 년간 살아온 집, 골목길, 함께해 온 정겨운 이웃들이 있는 이 마을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지역의 도시화 속에서 개발되지 않고 5~6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복현1동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의 이야기는 수십 년이 지나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살아가야 하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큰 배움과 울림을 전하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며 마을 스토리 자원을 만드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복현 그림마당’에서 주민들이 직접 그려낸 마을의 모습은 참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장화 없이는 다니지 못했던 그림 속 복현동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지만 삶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값진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복현유사 굿즈를 개발하였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첫 발걸음(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잊혀 가는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만든 마을 아카이빙 브랜드 ‘복현유사’로 복현동의 이야기가 지역과 미래세대의 삶에 오랫동안 따뜻하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복현의 이야기를 그리다

## 복현화

### 함께한 사람들

강순덕, 강승자, 권영순, 백순월, 이말순, 이순자, 장복희, 한영자, 허영숙  
김민서, 김용현, 김지호, 김현서, 나울, 서종정, 윤자경, 이혜나, 제갈동호

발 행 일 2021년 11월

발 행 처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9길 13, 2층

전 화 053)939-3550

이 메 일 bh1dong@naver.com

아카이브 www.bokive.com

디 자 인 헤이나 아틀리에

인 쇄 와우프레스

「복현 그림마당」은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책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 아카이빙」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무단 전재 또는 재배포·복제를 금합니다.





